

# 아돌프 로스의 장식배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olf Loos's renunciation of ornament

유연숙\* / Yoo, Yeon-Sook

### Abstract

Adolf Loos studied at the Dresden Institute of Technology. He lived in America from 1893 to 1896. On his return to Vienna, he worked for a year with the architect, Carl Mayreder. From 1897, he wrote extensively on design and architectural matters. In 1908, his famous article "Ornament and Crime"(Ornament und Verbrechen) was published, in which he linked the use of excessive decoration to a debasement of society.

For Adolf Loos, it was a question not of renunciation of every ornament, but of the liberation from superfluous ornament. Where ornament was pasted on only, without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r the building, and where ornament was not honest with the hand put on, the ornament is supposed to be removed. Onto the place of the ornament the joy of the material and the shaping should step. That the opinion of Adolf Loos is not correctly understood is due on the one hand to the concentration on the 'ornament and crime' too very much. On the other hand his extreme Position is supposed to be understood more as thinking-impulse, more as provocation.

키워드 : 장식, 분리파, 아돌프 로스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스트리아 태생의 건축가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가 1908년에 발표한 '장식과 범죄'(Ornament und Verbrechen)라는 비평 에세이처럼 디자인사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헌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의 내용 혹은 장식에 대한 로스의 견해를 상세하게 소개한 문헌을 국내에서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로스의 건축과 공간계획(Raumplan)에 대한 연구결과가 자주 발표<sup>1)</sup>되고 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또한 로스가 반 장식주의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장식배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일정한 경우에 장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장식과 범죄'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장식에 대한 로스의 견해를 상세히 소개하고, 이러한 그의 견해가 왜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로스의 건축, 실내건축 및 가구디자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려고 한다.

### 1.2. 연구의 방법

장식에 대하여 로스가 가장 상세하게 다룬 것은 물론 '장식과 범죄'에서이지만 이것이 장식의 문제와 관련된 그의 유일한 문헌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스의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참고하여 그의 장식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였다. 로스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이유의 비판적 분석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장식과 범죄'의 내용 및 장식에 대한 로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앞 부분에서는 '장식과 범죄'가 발표되기 전의 디자인 관련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며, 뒷 부분에서는 로스의 건축, 실내디자인 및 가구디자인에 로스의 장식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예를 통해 다루기로 한다.

1) 예를 들어 강우영, 아돌프 로스의 라움플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김주애, 아돌프 로스 건축의 공간적 내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유동광, 아돌프 로스의 건축 구성원리와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7; 이세영,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라움플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1997; 김병윤, 아돌프 로스와 건축의 정신적 혁신, 공간, 8504; 김진규, 아돌프 로스의 건축과 이론, 공간, 8508. 로스의 실내 및 가구디자인에 관한 논문으로는 지수인, 아돌프 로스의 실내공간개념과 가구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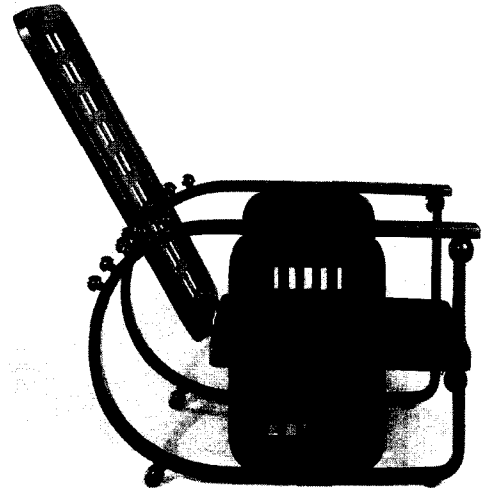
\* 정희원, 신홍대학 겸임교수

## 2. '장식과 범죄'<sup>2)</sup>

### 2.1. 시대적 배경

19세기 후반에 기계와 산업의 발달에 의해 일용품과 새로운 기능을 가진 도구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게 되었지만 이러한 공업생산품들의 새로운 미학은 우선 당분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형에 있어서 역사적인 양식들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상이한 시대들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가구와 기술적 도구들을 장식하였다. 비유해서 말하면 기계들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계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다. 특히 부유층에서는 이와 같이 장식으로 과적된 역사주의 양식이 인기를 끌었다. 저렴한 그리고 질적으로 좋지 않은 대량생산품으로 귀족의 중세 생활양식을 복사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개혁이 사회의 여러 층으로부터 요구되었다.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동자들을 위한 단순하고 저렴한 일용품들을 요구하였다. 교양 있는 자들은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미적인 관점에서 추한 질충적 형태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지나친 양식의 혼합에 이르렀고 근대적인 산업적 생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체계와 무역업의 대표자들은 세계시장에서의 뒤지는 경쟁력에 불만을 가졌다.

변화의 움직임이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 후에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났다. 영국에서의 예술과 공예 운동(the Arts and Crafts Movement), 프랑스와 벨기에에서의 아르누보(Art Nouveau), 독일에서의 유겐트스틸(Jugendstil), 오스트리아의 분리파(Sezession) 등이 그 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업화의 부정적 결과와 역사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미적 그리고 경제적인 방식에 대한 견해는 같지 않았다. 1897년에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오토 바그너(Otto Wagner),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등에 의해 형성된 오스트리아의 분리파는 초기에 아르누보와 유사했지만 1900년의 제 8차 분리파 전시회 이후, 특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의 영향을 받아 점차 기하학적인 형태언어를 선호하게 되었다. 1903년 분리파의 새로운 예술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엔나 공방이 요세프 호프만(Josef Hofmann), 콜로만 모저 그리고 은행가 프릿츠 바른도르퍼(Fritz Wärndorfer)에 의해 문을 열게 되었다. 1905년 분리파는 1932년에 파산한 이 공방에 의해 해체되었다.



<사진 1> 요세프 호프만의 기하학적 형태의 의자(1908)

분리파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디자인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선호하고 이것과 필연적으로 관련하여 장식을 보다 적게 사용함으로써 모더니즘의 탄생에 길을 열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즈음에 비엔나에서 활동한 디자이너 중 장식을 적게 사용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한 대표적인 사람은 로스와 바그너다.<sup>3)</sup> 그러나 장식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분리파 보다 더 기하학적인 형태를 선호한 것은 분리파에도 비엔나 공방에도 속하지 않은 로스다. 독일의 드레스덴(Dresden)에 있는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에서 1893년까지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약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이 때에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작품과 친숙해진 것이 그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2.2. 내용

#### (1) 장식과 범죄의 관계

로스는 인류 발전의 이전단계에서는 적합했던 문화적 표현이 이후에 퇴화하거나 범죄로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신을 예로 들고 있다.<sup>4)</sup> 또한 어린이들의 일정한 행동이 아직 범죄행위는 아닐지라도 같은 행동을 근대의 성인이 할 경우에는 범죄나 퇴화현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예로서 벽, 특히 화장실의 벽에 내적인 충동에 의해 성적인 동기를 갖고 그린 그림을 들고 있다. 로스는 특히 문신과 장식의 비교를 통해 장식의 혐오성, 범죄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며 문신을 하지 않아 매끈한 피부와 장식이 없어 매끈한 일용품과 건축물의 연관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로스가 장식을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디자인학회회지, 21호, 등이 있다.

2)Loos, Adolf, Ornament und Verbrechen(1908), in : Glück, Franz (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pp.276-288. 로스의 문헌은 개별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Franz Glück과 Adolf Opel이 로스의 문헌들을 수집하여 출판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Glück의 Loos문헌 모음집을 참고 문헌으로 선택하였다.

3)Garner, Philippe, Möbel des 20. Jahrhunderts, p.66.

4)Loos, Adolf, op. cit., pp.276-277.

그의 설명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장식은 범죄자에 의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국가의 재산, 인간의 문화적 발전에 현저한 해를 가함으로써 스스로 범죄를 범한다.”<sup>5)</sup>

## (2) 장식과 문화

로스 는 한 편으로는 장식, 다른 한 편으로는 문화, 문화인, 문화의 발달의 관계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진화는 일용품에서 장식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sup>6)</sup>라는 인식을 로스 스스로가 얻게 되었으며 이 인식을 세계에 선물하였다고 말한 점이다.<sup>7)</sup> 로스는 장식이 우리의 문화와 더 이상 유기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장식은 더 이상 우리 문화의 표현이 아니며, 장식이 더 이상 우리 문화의 자연적 산물이 아니고 진부이거나 퇴화현상이므로 장식가의 일은 더 이상 적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또한 우리의 문화적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장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한다.<sup>9)</sup> 로스는 장식이 설사 아름다울지라도 문화인의 삶의 기쁨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하며 국민들의 문화적 발전을 조장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가 장식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만든 것에 대해 비판하는데<sup>10)</sup> 여기에서 로스는 분리파와 비엔나 공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행동의 배경을 로스는 모든 국가는 국민의 수준이 낮으면 지배하기가 더욱 쉽다고 생각한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 (3) 근대적 장식의 존재 부정

로스 는 ‘장식과 범죄’를 발표한 당사가 이미 하나의 새로운 장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위대성을 결정짓는다고 단정한다.<sup>11)</sup> 장식이 극복되었으며 무장식의 세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근대적 장식의 부정은 비엔나의 분리파를 겨냥한 것이었다.

‘장식과 범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순은 로스가 근대적 장식을 앞부분에서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는 근대적 장식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2)</sup> “오늘날 만들어지는 장식은 우리나라 세계질서와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인간적인 연관성도 없다. 그것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근대적 장식가는 낙오자이거나 병리학적인 현상이다... 근대적 장식은 부모도 후손도 없으며 과거도 미래도 없다.”<sup>13)</sup> 즉 로스는

그 존재를 부정한 근대적 장식을 병리학적이거나 전통이 없어 비역사적이라고 본다.

## (4) 장식배제의 경제적 근거<sup>14)</sup>

노동의 절반이 장식에 투자되기 때문에 장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4시간만 일하면 되고 이것은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로스는 말한다. 로스에게 있어서 장식은 노동과 재료의 낭비, 즉 자본의 낭비를 의미한다. 특히 그 동안의 발전에 의해 더 이상 장식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물건에 장식을 하는 것은 노동력의 낭비와 재료의 손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을 장식의 변화에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생산품이 너무 이르게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로스는 장식가와 산업이 남아있는 가치의 창조 대신에 빠른 장식의 변화를 선호한다고 지적하며 빠른 장식의 변화를 고종중대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오스트리아 국가 경제의 비밀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차라리 한 도시를, 제국 전체를 불태워 버리면 모든 것이 돈과 복지 속에서 해엄치게 될 것이라는 빈정적인 제안에서 극에 달한다.

## (5) 장식배제의 미적 근거

로스 는 장식배제의 경제적인 이유를 미적 이유와 연관시킨다. “한 객체가 물리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만 그 객체의 형태는 유지되며 소화될 수 있다... 만약 모든 객체가 물리적인 만큼 미적으로 유지된다면 소비자는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보다 적은 시간 동안만 일해도 될 수 있게 될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장식된 물건들이 정말 추하게 보이는 것은 그 물건이 가장 좋은 재료로, 최고로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졌을 때이다.”<sup>15)</sup> 여기에서는 물리적으로 오래 유지되는 객체(예를 들어 가구) 빨리 그 매력을 잃고 그 결과 미적인 지각에 불유쾌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장식 없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로스 가 장식배제의 경제적인 이유를 미적 이유와 연관시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식의 소생이 미적인 발전에 초래하는 피해는 가볍게 극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을 포함한 누구도 인류의 진화를 막을 수 없고 단지 지연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을 통해 노동, 돈과 재료가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범죄이다.”<sup>16)</sup>

## (6) 예술에 의한 장식의 대체

로스 는 인간이 자신의 얼굴 및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장식하려는 욕망에 조형예술의 발단이 있다고 본다.<sup>17)</sup> 그는 모든 예

5) *ibid.*, p.281.

6) *ibid.*, p.277.

7)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이 세계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세계는 아직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았다고 로스가 이어서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스는 장식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업적으로 간주한다.

8) *ibid.*, pp.282-283.

9) *ibid.*, p.286.

10) *ibid.*, p.279.

11) *ibid.*, p.278.

12) 이러한 모순을 지적한 문헌은 Amanshauser, Hildegund, Untersuchungen zu den Schriften von Adolf Loos, p.34.

13) *ibid.*, p.283.

14) *ibid.*, pp.282-285.

15) *ibid.*, pp.284-285.

16) *ibid.*, p.280.

술이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십자가를 첫 번째의 장식이며 첫 예술작품이라고 간주하고 성적인 기원을 가졌다고 말한다. 로스는 역사적으로 보아 예술이 장식을 대체했다는 가설을 세우며 이전에 장식에 의해 충족되었던 욕구가 근대인의 경우 예술에 의해 충족된다고 말한다.<sup>18)</sup> 장식에 더 이상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발달되었다고 판단한다.

### (7) 장식이 인정되는 경우<sup>19)</sup>

‘장식과 범죄’가 대부분 장식의 엄격한 배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끝 부분에서 로스는 두 가지의 경우에 장식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로스는 장식이 다른 인간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때 장식의 거부를 통해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므로 이 장식을 견디어 낼 수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장식을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서 직물을 짜는 캐퍼족(Kaffer), 양탄자를 만드는 페르시아인, 레이스에 수를 놓는 슬로바키아의 농부 그리고 구두장이의 장식을 든다. 우리에게 장식을 대체한 예술이 있지만 사회의 낮은 층에 속하는 그들에게는 삶의 정점에 오르게 해 주는 상응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로스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는 남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향과 자신이 힘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혁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둘째, 로스는 무장식성이 정신적 힘의 표시라고 단정하고, 근대인은 이전의 혹은 다른 문화권의 장식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사용하지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은 장식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도 로스가 장식의 절대적 배제를 주장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다. 위에서의 무장식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새로운, 근대적 장식의 고안에 관련된다.

## 3. 다른 문헌에 나타난 견해의 보충

로스가 장식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장식과 범죄’에서 만이 아니다. 1910년의 ‘건축학’(Architektur) 등에서도 장식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장식과 범죄’에서의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장식과 범죄’를 통해서만 알 수 없는 사실과 새로운 내용을 다룬 로스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로스의 견해를 보충하기로 한다.

### 3.1. 장식에 대한 비판의 시작

로스의 장식배제와 관련하여 예외 없이 ‘장식과 범죄’가 인

17) *ibid.*, pp.276-277.

18) *ibid.*, p.287.

19) *ibid.*, pp.286-288.

용되지만, 그의 장식에 관한 이론의 중요한 가설들의 일부는 1898년에 발표된 ‘호화차량’(Das Luxusfuhrwerk)<sup>20)</sup>에 이미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 로스는 국민의 수준이 낮을수록 장식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디언처럼 미를 장식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되며 형태에서 찾는 것이 전체 인류가 달성하려는 목표라고 주장한다.<sup>21)</sup>

### 3.2. 장식의 필요성 인정

1910년에 발표된 ‘두개의 논문과 미하엘러 광장에 있는 집에 관한 서한’(Zwei Aufsätze und eine Zuschrift über das Haus auf dem Michaelerplatz)<sup>22)</sup>에서 로스는 자신이 건축한 미하엘러 광장에 있는 집에 원래 층 사이에 소용돌이 무늬의 띠장식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장식에 필요한 것은 성실하게 손으로 작업되어야 한다.”<sup>23)</sup> 이러한 사실에서도 로스가 절대적으로 장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식이 성실하게 손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객체와 유기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는 이전의 장식의 자리에 가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이 재료가 갖는 장식적 효과를 의식적으로 연출한다.

장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로스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지닌 1924년의 ‘장식과 교육’(Ornament und Erziehung)<sup>24)</sup>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로스는 실용적, 심리적, 교육적인 이유에서 장식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선 실용적인 목적으로서의 장식을 소비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생산자의 문제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한다.<sup>25)</sup> 심리적으로 보아 장식은 원래 근로자에게 노동의 단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로스는 말한다.<sup>26)</sup> 공장의 소음 속에서 하루에 8시간씩 배틀에서 일하는 여공은 때때로 오색의 실이 나타날 때 이것을 기쁨으로, 구원으로 여긴다고 그는 비유하며, 우리 근대인 중 누가 다양하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천의 무늬를 비근대적으로 여기겠는가 반문한다. 끝으로 로스는 학교의 제도(미술) 수업에서 고전적 장식(das klassische Ornament)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p>27)</sup> 고전적 수업이 언어와 국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양문화의 공통성을 이루어 내었기 때문에 고전적 장식을 보호하고, 기둥의 양식 등에 관심

20) In : Glück, Franz(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pp.62-69.

21) *ibid.*, p.65.

22) In : Glück, Franz(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pp.293-301.

23) *ibid.*, p.299.

24) In : Glück, Franz(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pp.391-398.

25) *ibid.*, p.394.

26) *ibid.*, pp.394-395.

27) *ibid.*, pp.396-397.

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로스에 의하면 고전적 장식이 제도(미술) 수업에서 문법과 같은 역할도 한다. 우리의 영혼과 사고의 질서가 문법의 덕택인 것처럼 고전적 장식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용품의 형태부여에 질서를 가져다 주고 민족적,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태와 미적 개념의 공통성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로스는 이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장식의 가치를 인정한다. 동시에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장식이 일용품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은 중단 없이 일관되게 계속되며 자연적이다”라고 이전에 밝혔던 자신의 견해가 장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sup>28)</sup> 장식이 언젠가 시대적 필요에 의해 사라진 바로 그 곳에서만 다시 장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하며, 이것은 인간이 다시는 얼굴에 문신을 새기지 않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말한다. 이와 같이 장식이 사라지지 않는 예로서 로스는 여성이 사용하는 유행을 타는 일용품에 사용되는 장식을 들고 있다.<sup>29)</sup>

### 3.3. 재료와 수공예의 중요성

‘형중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Antworten auf Fragen aus dem Publikum)<sup>30)</sup>에서 로스는 재료와 수공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이전에 선호되었던 일용품과 건축물의 장식이 재료와 작업의 가치인정의 과정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는데<sup>31)</sup> 여기에서의 작업이란 일차적으로 수공예적 작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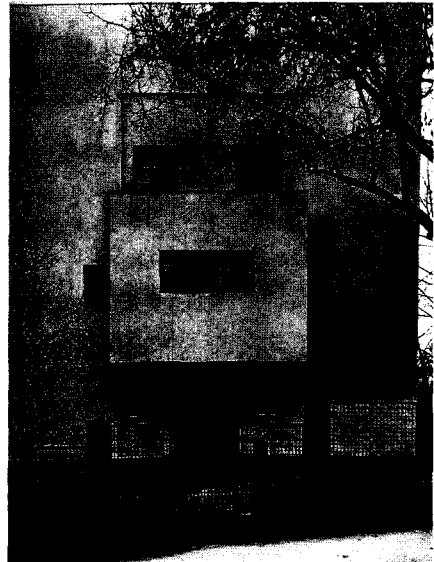
### 3.4. 기타

‘장식과 교육’에서 로스는 “근대인이 장식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로스는 모던한 객체들은 아무런 장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다만 여성에게 속하는 물건은 예외지만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본다.<sup>32)</sup> 로스는 장식이 불필요하게 된 역사적 시점을 프랑스 혁명에 보고 있으며, 장식을 한 문화권에 속한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함께 작업한 결과로 간주한다. 이것은 장식으로부터의 해방이 19세기로의 전환기에 일어난 하나의 시민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33)</sup> 로스는 자신이 옹호하는 무장식성이 매력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매력으로 작용하고 활기를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4)</sup> 이러한 주장은 장식이 없어지고 장식의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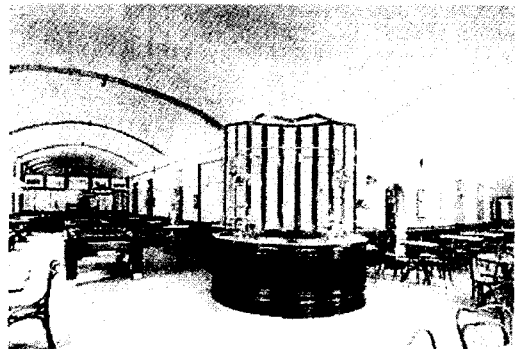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를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로스가 장식의 필요성을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가 된다.

## 4. 비판적 고찰

지나친 장식의 배제 및 이에 입각한 기능적 형태의 추구를 이론화하고 이것을 건축, 실내건축 그리고 가구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아돌프 로스는 스코틀랜드의 찰스 레니 매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오스트리아의 오토 바그너(Otto Wagner), 요세프 호프만(Josef Hoffmann),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독일의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 그리고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등과 더불어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분류된다.



<사진 2> 아돌프 로스의 몰러하우스(Moller Haus, 1928) 입구  
장식에 의존한 미의 추구보다 사물의 형태미를 발견하여 다른 부분과의 조화를 꾀하는 기능성을 무장식의 공간 속에서 유일한 예술미로 간주.



<사진 3> 아돌프 로스의 카페 뮤지움(1899)  
투명하고 기능적인 형태부여와 재료의 적합한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당시의 분리파가 선호한 과도한 장식에 대조된다.

34)In : Glück, Franz(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p.393.

28)ibid., p.395.

29)ibid., p.393.

30)in : Glück, Franz(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pp.355-378.

31)ibid., p.356.

32)in : Glück, Franz(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p.393.

33)Amanshauser, Hildegund, op. cit., p.38.



<사진 4> 아돌프 로스의 팔걸이 의자(1899)  
이 의자에서 장식은 유일에게 의자의 구조에 기인한다.

로스가 장식을 거부하는 반 장식주의자라고 일반적으로 소개되지만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확하지 못하다. 첫째, 로스는 일정한 경우에 장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로스가 거부하는 것은 장식 그 자체가 아니라 수공예적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분업으로 인해(특히 건축가에 의해) 제도책상에서 구상된 근대적인 장식이다. 무엇보다도 '장식과 범죄'에서 로스는 장식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우리의 주위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장식의 필요성을 일정한 경우에 로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장식과 범죄'라는 제목의 선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로스가 사용하는 표현들은 과장적이고 도그마적이며 이러한 표현들에 의해 주장된 극단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사고의 충격 혹은 자극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로스의 견해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오해되기도 한 데에는 로스의 대표적 문헌인 '장식과 범죄', 그것도 앞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독자 혹은 청중들이 로스의 의견을 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준비가 결여된 것을 경험한 것과 자신의 생각이 타당함에 대한 확신 때문에 로스는 저술과 강연에서 독자 혹은 청중들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의 핵심적인 의견이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sup>35)</sup>

## 5. 결론

로스는 장식이 일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특히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며, 적당한 표현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수공업자나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가 장식에 대한 연관성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고 장식을 만들어 내려 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고 한다. 로스는 1898년에 처음으로 장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그의 장식에 대한 거부는 초기에는 역사주의, 후에는 무엇보다도 분리파와 비엔나 공방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대표적 문헌인 1908년의 '장식과 범죄'에서 로스는 가장 상세하게 장식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1924년의 '장식과 교육'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자신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자신의 극단적인 제안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데서 생겨난 오해를 풀려고 하였다.

로스가 장식의 문화, 예술과의 관계와 경제적, 미적 이유를 들어 옹호한 장식배제는 절대적이 아니다. 로스는 특히 이전 시대나 다른 문화권의 장식과 작업과정에서 즐거움을 주는 활력소로서의 장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가 거부하는 것은 장식 그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장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장식이란 객체와의 연관성이 없고 성실하게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장식을 의미한다. 로스는 불필요한 장식의 자리를 재료와 형태에 대한 즐거움으로 채우려한다. 이러한 로스의 입장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은 '장식과 범죄'에 대한 문헌적 의존, '장식과 범죄'의 내용 전체에 대한 고려의 결여 그리고 로스의 문헌에 주장된 내용들을 사고의 충격 혹은 자극의 의미 이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주연 역,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사, 1999.
2.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2001.
3. 지수인, 아돌프 로스의 실내공간개념과 가구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지 21호 1999년 12월.
4. Amanshauser, Hildegund, Untersuchungen zu den Schriften von Adolf Loos, Dissertation der Universität Salzburg, VWGÖ, Wien 1985.
5. Fiell, Charlotte Peter, Design des 20. Jahrhunderts, Taschen, Köln.u.a. 2000.
6. Garner, Philippe, Möbel des 20. Jahrhunderts, Keyer Verlag, München, 1980.
7. Glück, Franz (Herausgeber), Adolf Loos. Sämtliche Schriften, Erster Band, Verlag Herold, Wien/München 1962.
8. Hauffe, Thomas, Design, Dumont, Köln 1995.
9. Müller, Dorothee, Klassiker des modernen Möbeldesign, Keyser Verlag, München, 1984.
10. Rukschcio, Burkhard/Schachel, Roland, Adolf Loos. Leben und Werk, Residenzverlag, Salzburg/Wien 1982

<접수 : 2004. 4. 30>

35)Rukschcio, Burkhard/Schachel, Roland, Adolf Loos. Leben und Werk, pp.118-119.